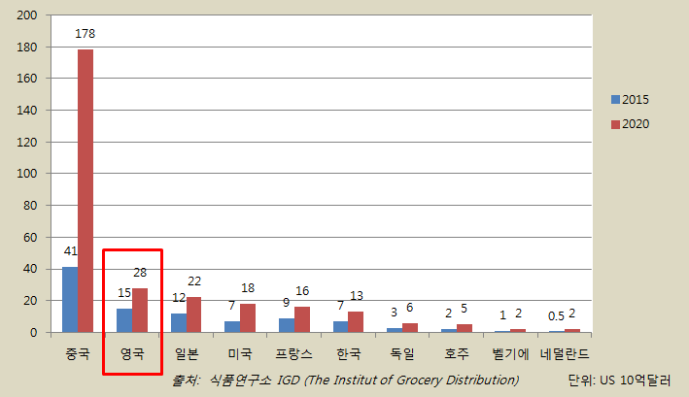
# 7 영국

## 7-1 온라인 시장의 거물 아마존, 영국 식품 시장 공략

■ 주요내용

-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, 영국 일부에서 신선·냉동식품 공급 개시
  - 2015년 아마존은 영국 대형유통업체 모리슨(Morrisons)과 제휴하여 신선·냉동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이미 온라인에서 제공하기 시작한 바 있음
  - 2016년 상반기에는 모리슨 社의 신선·냉동식품을 추가하여 온라인 판매 식품을 확대함
  - 관련 전문가들은 영국의 아마존이 2007년 미국에서 개시한 신선 식품 배달 서비스인 Amazon Fresh를 영국에 그대로 도입할 것인지, 기존 영국에서 운영 중인 당일배송 프라임 서비스로 신선·냉동식품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
  - 현재 영국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는 런던(London), 버밍험(Birmingham), 뉴캐슬(New Castle), 맨체스터(Manchester), 리버풀(Liverpool) 등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서비스 제공 지역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
- 영국, 세계 주요 온라인 시장으로 성장

| 2015년, 2020년 세계 주요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 |




  - 2015년 기준, 영국은 중국 다음의 큰 규모의 온라인 시장을 자랑하고 있으며, 가파른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
  - 영국 아마존 온라인 신선·냉동식품 판매는 영국 식품 시장에 큰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
  - 영국 아마존과 모리슨 社의 신선·냉동식품 제휴로 기존에 온라인 식품 구매/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테스코는 잠재적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### 시사점

- 영국 내 식품유통업체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온라인 식품 유통 도입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식품업체의 성장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예상
- 영국은 온라인 식품 시장이 발달한 국가로 기존 온라인 시장에서는 제외되었던 신선·냉동식품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한국 식품 수출업체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영국 수출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
작성 : 파리지사